

작은 믿음의 간구

신학박사 조 덕운

[마가복음 9:17-27]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 그가 그를 아무 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19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20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으므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22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24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27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 하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소위 ‘변화의 산’ 사건 후에 낮은 곳으로 내려 오셔서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 내고 그 아이를 온전하게 만드신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22 절]”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병 고침을 받게 해줄 요량으로 예수님께 데려 왔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능력이 있는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중에 이와 같이 악한 영에 사로 잡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까? 의사들에게 데려가도,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여러번 받았어도, 약물 치료나 한방 치료를 받았어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갈 수록 비용만 소모하고 고통과 번민은 커가는 경우가 바로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녀에 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쳐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이를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지 않는, 즉 제한된 작은 믿음으로,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의 경우를 기도를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평조로 이야기 합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신과 의사에게도 가보고, 한방 치료도 해보고, 상담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목사님께 말씀해 보았어도 진정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부족한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질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23 절].” 주 예수님의 능력이 병 고치기에 충분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간청하는 자의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관건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가? 나는 과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믿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가?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을 질책하셨지만, 그가 즉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도와 주실 것을 간구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 내심으로써 그 아이를 온전히 고쳐 주시는 자비로우심을 배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11-14]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14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된 여러분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되지 못한 이 세상의 자녀들도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대한 구세주의 해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적 시력을 고침 받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 큰 축복을 받게되었습니다.

24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궤도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정신적 문제를 도와주소서. 우리 자녀가 악령에 붙잡혀서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악한 기억에 시달리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 버리고, 남의 잘못만 보고 혹평을 일삼아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그 악한 영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그 옛날 악령에 사로잡힌 아들을 위해 간구했던 아버지를 도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 주십시오. 구세주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